

전남도,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TF’ 본격 가동

기본소득·국립의대·신재생에너지 공약과제 지정

30조원 규모 기대 정부 2차 추경 적극 대비키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4일 새정부 출범 관련 간부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로, 전남 미래 발전 절호의 기회”라며 국정과제 채택과 내년 국고확보 활동에 발빠르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 TF’를 구성해 시군과 함께 공약 세부과제 방안 등을 논의하고 향후 새정부 국정과제와 30조 규모로 기대되는 정부 2차추경 등에 대비키로 했다.

주요 공약과제는 △기본소득 △농어민 기본수당 △신재생에너지 허브 전남 조성 △미래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동북아 대표 관광공항 육성과 초광역 교통망 확충 △

미래 농수축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문화허브 조성 등이다.

김영록 지사는 간부회의에서 “전남도민이 83.6%라는 높은 투표 참여와 85.87%의 최고 지지율로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며 “이제 진짜 대한민국의 향해가 시작됐고, 전남 미래 발전이 눈에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곧바로 업무에 들어가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올인하겠다고 강조했다”며 “이를 위한 정부 2차 추경 추진이 예상된다. 서민경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30조 추경은 돼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도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도약의 기틀을 닦았지만, 지난 정부가 원전에 집중해 답보상태로 3년 허송세월을 보냈다”며 “새 정부에서 다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한다. ‘에너지 고속도로’, ‘에너지 기본소득’ 등이 대선 공약으로 여러번 언급된 만큼 잘 준비해 전남에서 큰 성과를 내도록 하자”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전향형 기본소득 추진 속도 △전남도의 농어민 기본수당에 정부 추가 지원 건의 △10개 거점국립대 공약에 대응해 목포대·순천대 통합 추진 모범 사례를 연계한 국립의대 설립 △남해안 특별법 제정과 남해안종합개발청의 전남 설립 추진 등으로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문화허브 조성 전략 추진 등을 강조했다.

전남도는 또 새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국정을 시작함에 따라 이날 발빠르게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 TF 첫 회의를 열어 국정과제 반영 건의사업 및 전남 지

역공약 세부사업 발굴 착수에 나섰다.

TF는 △신성장동력 △핵심 SOC △미래농어업 △관광·문화·휴양 △인구·복지 등 5개 정책 본과별로 15개 실국이 참여하고, 22개 시군도 함께한다.

전남도는 지역 미래발전에 꼭 필요한 핵심현안을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과제를 적극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전남 7대 지역공약의 세부사업을 시군과 함께 발굴해 정부부처와 국정과제 수립기관에 건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도별 공약의 세부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선거 이후 국정과제를 수립하면서 지역공약 세부과제를 확정키로 했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세부사업 조기 발굴 및 건의가 지역공약 실현에 무엇보다 중요한 일로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현충탑 참배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을 참배하며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 1728만7513표 ‘역대 최다 득표’

21대 대선 득표율 분석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49.42%의 최종 득표율로 당선됐다. 득표수로는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100% 완료된 결과, 이 대통령은 49.4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10%였다.

이 대통령은 1728만7513표를 얻으며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은 최다 득표 기록(1639만4815표, 48.56%)을 뛰어넘었다.

다만 득표율이 과반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최다 득표율 기록(18대 대선, 박근혜 전 대통령 51.55%)은 달성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2위인 김 후보를 8.27%p(289만1874표) 차로 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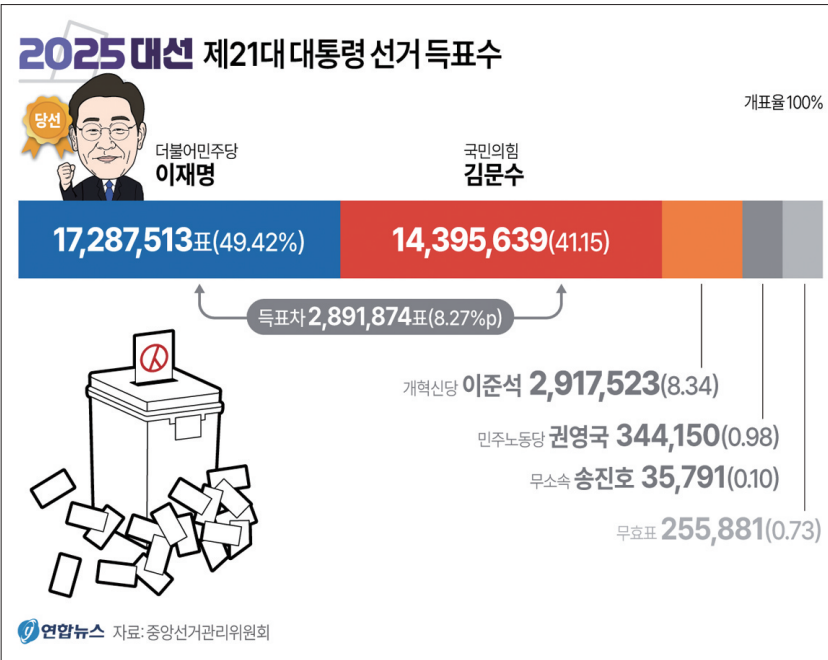
역대 최대 격차 당선은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2위인 대통령 후보인 정동영 후보를 22.53%p 격차로 승리한 것이었다.

영·호남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 후보가 각각 표를 독식하는 구도가 21대 대

49.42%...김문수 41.15%, 이준석 8.34%

‘호남 진보·영남 보수’ 지역 구도도 여전

李 수도권·충청서 우세 ‘협지’ 부울경 선전



선에서도 반박됐다.

다만, 영남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구도가 다소 흔들리는 모습도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으로 인식되는 호남권에서는 이 대통령은 광주(84.77%), 전남(85.87%), 전북

(82.65%)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지난 20대 대선(광주 84.82%, 전남 86.10%, 전북 82.98%)과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김 후보는 각각 8.50%, 9.05%, 10.86%에 그쳤다.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에서는 정반대를 기록했다. 김 후보는 대구(67.63%)·경북(66.87%)에서 강세를 보였으며, 이 대통령은 각각 23.23%, 25.53%를 득표했다.

김 후보는 또 부산(51.40%)·경남(51.99%)에서도 과반을 기록하며 이 대통령을 앞섰다.

울산에서는 김 후보가 47.5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이 대통령(42.54%)을 이겼지만, 득표율 자체는 50%를 밑돌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부산·울산·경남에서 모두 과반 득표했다.

수도권과 충청 표심은 이 대통령에게 기울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 밀렸다.

대전(이재명 48.51%, 김문수 40.59%)과 충남(47.68%, 43.27%), 충북(47.47%, 43.224%), 세종(55.63%, 33.2%) 등 충청 전역에서 이 대통령이 김 후보를 앞섰다.

이 대통령은 대선 승부처가 될 것으로 전망됐던 서울(이재명 47.13%, 김문수 41.56%), 경기(52.21%, 37.95%), 인천(51.68%, 38.45%)에서도 우세를 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전 지역에서 한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1% 안팎의 득표율을 얻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국민의힘 광주·전남서 다시 한 자릿수 득표

봉선2동서 김문수 득표율 13%...광주 평균 득표율보단 높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광주 남구 봉선2동 투표소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득표율이 20대 대선에 출마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득표율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집계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5개의 투표소가 있는 봉선2동에서 13.29% (1만4245표 중 1894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본투표보다 사전투표에서 7572표 중 493표(6.5%)를 얻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같은 지역에서 득표했던 21.87%보다 8.58%p 떨어진 수치다.

김 후보는 ‘광주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봉남지역에 있는 5투표소에서 26.0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대선 보수진영 불모지가 무색하게 39.11%의 높은 득표율 기록한 것에 비해 무려 13.04%p나 떨어졌다.

사전투표를 제외한 투표소별 득표율은 4

투표소(22.97%)·2투표소(19.14%)·1투표소(17.95%)·3투표소(17.29%) 순으로 뒤를 이었는데, 남구 전체 득표율(8.31%)과 비교해도 김 후보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봉선2동은 지난 대선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보수정당 후보에게 건네 주목을 샀다.

봉선2동과 비슷하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에 15.82%의 표를 줬던 광양의 득표율도 이번 대선에서 12.01%로 3.81%p 줄었다. 가장 많은 득표율을 올렸던 광양시 금호동도 28.14%에서 21.40%로 6.74%p나 급감했다.

나주지역 득표율 역시 같은 기간 11.82%에서 8.12%로 3.7%p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나주 빛가람동 득표율은 11.08%를 기록하면서 지난 대선(16.50%)보다 5.42%p 낮았다.

한편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광주·전남 평균 득표율은 8.28%를 기록했다.

이현규 기자

광주 살마? 이 앱 It# 들어봤어?

맛집·카페·핫플 광주의 다양한 가게 한눈에

잇샵으로 핫플 추천, 쿠폰으로 혜택받자!

모두의 쿠폰, 잇샵 It#

